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방문 격려

### 전춘성 진안군수,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위한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1일 저녁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MOU 체결국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4명이 머물고 있는 공동숙소를 방문·격려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1일 저녁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MOU 체결국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4명이 머물고 있는 공동숙소를 방문·격려했다.

이날은 해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한 지 2개월가량 돼 전 군수를 비롯해 입국숙 농촌경제국장,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장 및 운영주체인 조공대표가 함께 방문해 급여가 입금된 통장 및 생필품을 배부해 근로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은 진안군이 농림부 공모에 선정돼 일일근로자가 필요한 간헐적 일손지원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진안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개 농협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진, 안천, 동향, 주천, 용담 권역은 진안농협(010-8262-9474)에서 관리하면서 공동숙소는 상전면 신연마을에 두고 있고 백운, 성수, 마령권역은 백운농협(010-5765-9474)이 관리하고 백운면 원촌마을에 공동숙소를 마련했으며 부귀, 정천, 진안읍은 부귀농협

(010-3944-9474)이 관리하고 공동숙소는 부귀면 세동리에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해당 농협에 요청하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동숙소에서 작업장까지 농가가 직접 인솔하여 이용하면 된다.

진안군에는 현재 559농가 1,61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농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으로 인해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전춘성 군수는 "정정 진안의 맛 좋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구슬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농업근로에 임해주시는 농가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생활하는데 부족한 것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에 전화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근로자들은 "주민들과 농가주 덕분에 고향처럼 따뜻한 정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진안에서 돈도 벌고 선진 농업도 배우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선제적 토지 행정 실천

### 하유·괴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 군민 재산 가치 상승 기여

무주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하유지구, 괴목지구)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223필지 663,702.6㎡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앞으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과 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토지 활용 가치 또한 대폭 높아져 군민의 재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박각춘 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를 비롯한 맹지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했다"며 "무주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 토지 행정 실천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현재 점유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위성측량 등의 최신 측량 기술로 지적 경계를 재조사하고 표피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무주군은 지난 2013년부터 내유속지구, 치목지구 등 10개 지구 3,673필지, 7,053,297.9㎡의 토지 경계를 확정해 왔다. /무주=전문성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농업센터, 농업인 교육 유튜브 채널 개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바쁜 영농으로 인한 교육생들을 위해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을 개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운영은 교육생들에게 농업 기술 교육내용 제공하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9일 첫 개설했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첫 개설을 시작으로 7월 7일에는 '장수군농업인대학 포도반 현장 견학을 가다' 영상을 게재해 포도 품종의 전반적인 재배기술 교육 영상을 제공했다.

군은 앞으로도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이외에도 각종 농사 교육, 농업기술전문교육, 찾아가는 농업현장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각종 농사 정보와 꼭 필요한 유용지식 또한 전달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건강한 식습관 위한 조리실습 교실 운영

진안군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조리실습 교실'을 운영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 지원 실시를 목적으로 연중 진행하고 있다.

12일 첫 실시한 조리실습에는 요리전문가를 초청해 유아 영양간식 만들기 이론 및 실습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강사로부터 간식에 이용되는 식재료와 응용조리법 등의 설명을 들은 뒤 담당 영양사와 소그룹을 꾸려 조리 실습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인 동시에 영양위험요인(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63-430-8539)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영양평가를 받아 볼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하게 전주승화원 이용한다

### 오늘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대 화장장 이용 가능

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전주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3일부터 장수군민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 또한 30만원에서 7만원으로 전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전주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인 화장장 대란이 이어지면서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화장장 예약에 제한을 받아 4일장, 5일장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적기에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장수군에서는 화장장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4월 18일 전주시와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수군민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새로 신축한 전주승화원은 화장로가 기존 6기에서 8기로 늘어 전주승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다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도내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2년 연속 '우수'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1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무주군은 체납차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징수

율과 △변호관 영치 실적,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적 등 8개 항목에서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에 따르면 고질 상습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

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행정제재를 유보해 주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코로나19 여파 등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납세예의를 보여준 무주군민과 그에 맞춘 징수활동 덕분에"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눈높이를 맞춘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성 기자

# 장수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장수군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국민·공무원 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의 대면 심사를 거쳐 3건의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의 '장수형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화 체계 마련'이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로는 건설교통과 농촌시설팀의 '습매수 개선사업 추진', 장려사례로는 축산과 축산정책팀의 '장수한우 공동브랜드 프로모션 추

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장수한우 이미지 제고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뽑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업무담당자에게는 성과급 S등급, 근영가점,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군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로 홍보할 계획이다.

조용호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장수군 발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규제 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안인문학학교' 진행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노영민)는 12일 마이산 에코타운에서 진안인문학학교를 개강했다.

진안인문학 학교는 지난 2019년도 시작해 5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명의 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12일부터 열린 인문학 학교 시즌5는 '진안 자연생태 인문학 여행'을 주제로 진안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생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총 5회차로 진행된다.

12일 열린 1강에서는 지혜공유협동조합 유정길 이사장이 '미래사회를 위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란 주제로 문을 열었다.

이후 2강(7월 13일)은 나무칼럼리스트 고규홍 교수의 '진안의 마을 숲에서 본 생태 인문학'이란 주제로, 3강은 7월 18일 한국스토리텔링 발전포럼 김유석 대표님의 '진안의 생태 스토리텔링'이란 주제로 마을과 지명에 녹아있는 생애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간다.

또한 4강(7월 20일)은 원광대 이창섭 교수로부터 '자연과 어울리는 주거환경과 마을 공간디자인'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5강(7월 22일)은 주천면 안정마을 숲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생태소풍'이란 주제로 마을숲에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